

장마에 주말마다 비... 실내온도 제약에 냉방도 어려워

雨...雨... 시원찮은 백화점 여름세일

광주 신세계·롯데 매출 신장률 한자릿수

광주지역백화점들이 지난달 24일부터 여름 정기세일을 실시한 가운데 이른 장마와 실내 내부온도 제약 때문에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일 기간이 예년보다 빨리 시작된 장마와 겹쳐 고객이 준 탓에 매출목표 달성이 어려운데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라 백화점 내 냉방 온도를 24~26도로 맞추다 보니 '실내 온도가 높다'는 고객들의 잇단 민원에 이렇다 할 묘안이 없는 실정이다.

4일 지역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광주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달 24일부터 3일까지 매출 신장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여름

정기세일 기간에 비해 각각 8.7%와 3%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지만 당초 세일 기간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신세계의 경우 지난해 여름 세일기간 매출 신장률은 전년 대비 14.6%에 달했고, 2008년에도 전년 대비 15%대 성장을 하는 등 매년 두 자릿수의 신장률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롯데백화점은 올 여름세일 기간 목표치 대비 매출이 -33%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2일은 86.3%, 3일은 91.9%로 목표치보다 10%포인트 이상 매출을 올리지는 못했다.

이처럼 백화점들의 여름 세일기간

매출폭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은 날씨의 영향이 크다. 광주지역은 지난달 24일부터 3일까지 10일 동안 3일을 제외하고 매일 비가 왔다. 평소보다 백화점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지난달 24일 세일 첫 주말과 지난 1일 두 번째 주말 역시 비가 내렸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최근처럼 매일 비가 계속되면 고객들의 방문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백화점 내 냉방온도도 고객들의 불만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광주 신세계는 현재 24도,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6도로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세일기간이라 평소보다 많은 고객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주변이나 식당 인근은 체감 온도가 더 높아 '소풍하기엔 덥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주말 신세계백화점을 이용한

김모(여·45)씨는 "백화점은 시원할 것 이라고만 생각했는데, 7층부터 1층까지 많은 사람을 뚫고 매장을 구경하다 보니 땀이 나서 불쾌감마저 들었다"며 "실내에서 판매하는 직원들마저 더위에 살짝 지쳐보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오는 11일부터 백화점 등의 실내온도를 다음달 27일까지 26도로 제한하기로 해 냉방온도도 인한 고객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 신세계 관계자는 "고객들의 항의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시책에 따라 온도규정은 준수해야 한다"며 "고객들에게 무료 음료와 부채 등을 제공하거나 매장에 바캉스 분위기를 연출하는 등 백화점 내 체감온도를 낮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exian@kwangju.co.kr



환율, 또 연 저점 기록 서울 외환시장에서 4일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10원 내린 1063.50원에 마감. 지난 5월 2일 기록한 연저점(1065.00원)을 두 달 만에 갈아 치웠다. 사진은 4일 오후 촬영한 서울 시내 한 금융회사 대형 스크린. /연합뉴스

남화토건 코스닥 신청

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전남지역 증권건설사 남화토건(대표이사 최상준)이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다.

4일 남화토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달 28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통상 2개월간의 예비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연내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준 대표이사는 "기업가치를 높이고 신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을 예비심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남화토건은 화순에 본사를 둔 전남 지역 증권건설업체로 1958년 8월 설립했다.

총 자산은 지난해 말 현재 1021억 원으로 자본금 44억 원(발행주식 874만주), 자기자본 835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총 매출액 499억 원, 영업이익 14억 원, 당기순이익 42억 원을 기록했으며, 시공능력평가 순위 전국 109위, 전남지역 8위다.

조선대 생산형창업보육센터, 하효항, 울산신항방부도로공사, 육천생기 위해 코스닥 상장을 예비심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최상준 대표이사 부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7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무안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남화산업을 비롯해 남화개발, 한국케이비 TV광주방송, 한국시멘트, 한국레미콘 등을 계열사를 두고 있다. 관계사로는 센트럴상호저축은행이 있다.

남화토건의 코스닥 상장 여부는 예비심사가 통상 2개월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8~9월께 판가를 날 전망이다. 거래소의 승인 결정이 나면 일반공모를 거쳐 빠르면 10~11월 상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장 공모는 300만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량 신주 모집한다. 한편, 계열사인 한국시멘트도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 중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공정위, 대형마트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4일 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간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하고 관련업계에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표준거래계약서는 상품대금 지급 및 금액, 장려금(수수료)의 결정, 관측사원 파견 및 관측행사 진행, 계약해지 등 요건과 절차를 투명화·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준거래계약서는 ▲대형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해 일정한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형태

인 직매입과 ▲대형마트가 반품 조건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하는 형태인 특정매입 두 가지로 구분해 제정됐다.

유통업계 표준거래계약서는 백화점, TV홈쇼핑에 이어 대형마트가 세 번째이며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에는 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할 계획이다. 계약서는 상품 발주 후에는 대형마트가 상품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하되, 다만 납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만 서면 합의에 따른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2145.30 (+19.56)
▲ 코스닥지수	489.30 (+5.19)
▲ 금리 (국고채 3년)	3.78% (+0.01)
▲ 원·달러 환율	1063.50원 (-3.1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광주무역회관, 해외 수출 전초기지 역할 톡톡

광주무역회관이 지역 중소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공략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백재선)는 3일 수출 초보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달 3일부터 광주시 광산구 광주무역회관 내 창업보육시설을 갖춘 인큐베이터 사업을 적극 추진, 5개 업체로부터 총 521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광주전남본부는 지역 내 무역업체만을 위한 창업보육시설이 전무한 점을 감안해 광주무역회관 3층

인큐베이터 사업 추진
초보 무역업체 5곳 지원
521만 달러 수출 실적

에 사무실과 전시실, 바이어상담실 등 인큐베이터 관련 시설을 별도로 마련, 초보 무역업체 5곳을 입주시켜 지원해왔다.

이들 업체에게는 저렴하게 사무실을 제공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자금 융자 등을 우선 지원했다. 또 업체별 전담 자문위원을 배

정을 통해 무역실무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주)노보 인터내셔널은 러시아 등에 컴퓨터 용 잉크 292만 달러어치를 수출했고, 이스톤코퍼레이션은 베트남·중동에 생활용품 110만 달러어치, (주)한국해상수출단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견해삼 등 농수산물 109만 달러어치 등 총 521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냈다. 또 한국해상수출단은 수출 확대를 대비해 자체 제조시설을 건립 중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전 사장 누구?

김쌍수 후임 선정 공모

한국전력공사가 신입 사장 공모 절차를 마치고 물러나게 됐다.

4일 지식경제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13일까지 사장 응모를 받고 임원추천위원회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신입 사장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로써 연임 여부로 관심을 끌었던 김 사장은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게 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연임은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것이고,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는 것은 임기 3년짜리 사장을 새로 뽑는다는 의미"라며 "공모에 착수하면서 김 사장의 연임은 자동적으로 물 건너간 것"이라고 말했다.

나중에 조성 중인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에 입주할 예정인 한전은 직원만 2만여명이 넘는 국내 최대 공공기업으로, 한전 CEO의 경우 사실상 관할 부처인 지식경제부는 물론 청와대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로 꼽힌다.

따라서 관료와 민간 출신의 전문가들이 한전 사장 자리를 놓고 열띤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고속 '고객행복 모니터' 운영

경영·서비스 개선 반영

금호고속(대표 김성산)은 4일 고객의 생생한 경험을 회사 경영과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고객행복 모니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고객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개선하면 회사는 적극 반영해 개선하는 쌍방향 고객 서비스다.

금호고속은 최근 공개모집을 통해 고객행복모니터 25명을 선발했으며, 광주에서 전주·광양·영광·장흥·강진·해남·목포·순천 등 주요노선을 정기적

으로 이용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모니터는 직원 친절·과속·신호 위반 등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차량 및 터미널 시설에 관한 사항 등 회사 전반에 관련해 느낀 점과 개선할 점에 대해 분기별로 한차례 모임을 갖고 의견을 내놓을 계획이다.

모니터는 1년 단위로 운영되며, 제1기는 내년 6월까지 활동한다. 이들에게는 해당노선 이용권 및 영화관람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양식장 직영 도·소매
할인복 전국택배 가능합니다.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